

'케데헌' 이재가 들려준 성공보다 값진 삶

태평로

이 위재
기획부장

'케데헌(케이팝 데몬 헌터스)'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. 주제가 '꼴든'은 지난주 빌보드 차트에서 3위에 자리했다. 8주 연속 1위 기록이 끝난 뒤 13위까지 밀렸지만 다시 뛰어올랐다.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이재(34·본명 김은재)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.

잘 알려진 대로 그녀는 12년간 유명 연예 기획사(SM엔터테인먼트) 연습생이었다. 연습생은 '인턴'이다. 정직원(데뷔)으로 상승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자,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이다. 그녀는 11세부터 23세까지, 빛나야 할 청소년기를 연습실에서 보냈다. 함께 땀 흘리던 또래들은 소녀시대, 샤이니, f(x), 레드벨벳 등으로 데뷔해 무대 위로 날아올랐지만, 계속 '연습생'으로 남아 있었다. 그 시절을 쓸쓸하게 회고했다. "어린 이재"에게 미안함이 있어요.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게 했으니까요."

연습생이 되는 것조차 좁은 문이지만, 데뷔는 더 바늘구멍이다. 쏟아지는 아이들 그룹 중 3년을 버티는 팀은 10%도 되지 않는다. 데뷔한 지 5일 만에 해

체한 아이들 그룹도 있었다. 데뷔는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인 셈. 이제는 그 활주로도 밟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.

"새벽 7시에 연습실에 가서 밤 11시에 나왔어요. 춤 6시간, 노래 6시간 하다가 기절도 했죠." 노력한다고 곧바로 문이 열리진 않았다. "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데뷔 못 하지? 나는 많이 부족한가 봐" (끊임없이) 생각했어요."

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은 대부분 10대에 데뷔한다)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보였는지 연습생 계약 조차 종료됐다. 당시 23세. "계약을 끝내고 택시를 타